

사교육 없는 옥과고 수능성적 수직 상승

인구가 3만 3천여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농촌마을인 곡성군이 ‘농·산·어촌교육’의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2005~2009학년도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언어, 외국어, 수리)에서 곡성군의 성적 상승폭(2005년 223위→2009년 90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5년간 상승폭 전국 1위

학생 절반 기숙사 생활

전문 강사들 초빙 수업

이 같은 ‘실력 곡성’을 이끈 주역은 바로 사립고교인 옥과고등학교다.

옥과고는 257.38점이던 2005학년도 3개 영역 표준점수를 2009학년도에 293.13점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2009학년도 전국 광역 시·도별 3개 영역 평균 점수 합산에서 1위를 차지한 광주(284.51)보다도 8.62점이 높은 점수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옥과고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다. 우수환 학교 시스템 덕분이기도 하지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수준 높은 사교육 기관(학원)이 없기 때문이다. 옥과고는 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다. 우선 교내에 기숙사를 마련해 전체 406명의 학

생 중 절반에 가까운 160명을 수용했다.

기숙사를 중심으로 하루 24시간 교사와 학생이 호흡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정규수업 후 연중 자율학습(오후 7시 30분~밤 9시 20분)과 연중 심야학습(밤 9시 30분~새벽 2시)을 운영했다. 물론 희망 학생에 한해서다. 이 시간에는 교사들이 배치돼 공부를 적극 도왔다. 또한 광주지역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해 도시 학생 대부분이 받는 사교육을 대신했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수준별 이동 수업제를 도입, 각 3단계로 반을 편성했다. 특히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은 심화반과 보통반, 기초반으로 나눠 영어 원어민 수업 등도 수준별로 진행했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빙, 영어논문 및 최신 신문기사를 통한 독해나 쓰기에 주력해 학생들의 ‘영어 울렁증’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인성 교육에도 충실=입학 사정관계 도입 이후 인성교육도 입시의 중요 요소라는 점에 주목, 학생들의 특기·적성·인성을 기르는 교육에도 집중했다. 이러한 수업은 방과 후에 이뤄지고 있으며 불링과 도예, 국악 등 22개 분야로 편성했다.

또한 봉사반과 스포츠 클럽반, 댄스반, 밴드반 등 상설 동아리반을 운영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화와 함께 가을 정취를”

광주 북구청 광장서 오늘부터 전시회

“국화와 함께 걸어가는 가을 정취 만끽하세요.” 광주시 북구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간 구청 광장에서 국화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룬대작·국화분재·입국·사투비아·메리골드·백일홍 등 100만 송이가 전시된다. 특히 높이 3m, 길이 15m의 아치형 터널에 공작깃털 모양의 현애(懸崖) 작품 150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국화 조형물

도 전시할 계획이다.

또 5층 꽃탑과 꽃마차, 꽃꽂이 작품, 토피어리(topiary), 숲 공예, 한지 공예 등을 국화 테마거리도 조성된다. 29일에는 조순 가정을 위한 무료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하지만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인형극 등은 열지 않기로 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추위 늦게 온다

온난화 여파…첫 서리·첫 얼음 갈수록 늦어져

광주·전남 기상관측 70년 동안 21~26일이나

된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23일)을 전후로 아침·저녁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늦가을 추위는 과거와 비교하면 늦은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가 점차 더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38년 기상관측 이래 광주·전남지역은 얼마나 따뜻해졌을까.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39년 광주에서 첫 얼음이 관측된 날은 10월 22일이었다. 지난해에는 11월 18일 첫 얼음이 관측됐다. 70년이 흐르는 동안 첫 얼음 관측 시기가 26일이나 늦어진 것이다.

광주에서 기상관측 이래 첫 얼음이 가장 빨리 관측된 날은 지난 1954년 10월 13일, 가장 늦은 것은 1982년 11월 25일이었다. 해에 따라 첫 얼음 관측 시기가 1개월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광주에서 평균적으로 첫 얼음이 관측되는 시기는 11월 9일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얼음이 어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추세다.

농작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첫 서리가 내리는 시기도 늦어졌다. 지난 1939년 광주에 첫 서리가 관측된 날은 첫 얼음이 관측된 날(10월 22일)과 같았다. 지난해 첫 서리는 11

월 13일 관측돼 70년 전보다 21일이나 늦어졌다. 광주에서 첫 서리가 가장 일찍 관측된 해와 가장 늦게 관측된 해는 각각 지난 1957년(9월 27일), 1990년(11월 22일)이었다. 평균적인 첫 서리 관측 시기는 10월 30일이었다.

광주지방기상청 김병춘 예보관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추위의 지표인 첫 서리와 첫 얼음 관측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반면, 마지막 서리 및 얼음의 관측시기는 앞당겨지고 있다”며 “이는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첫 얼음과 첫 서리 관측은 광주지방기상청(북구 운암동) 노장(露場)에서 이뤄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올 겨울 포근 … ‘기습 추위’는 잦다

광주지방기상청 예보

올 겨울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포근하겠으나 기온의 변동 폭이 큰 ‘기습 추위’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최근 ‘3개월 예보’를 통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광주·전남지역 기온은 평년

보다 높겠으나 기온 변화가 클 것”이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겠다”라고 예보했다.

11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은 평년(7~11도)보다 높겠으나 강수량은 평년(48~58mm)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올 겨울은 일시적으로 찬 대륙 고

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습추위’가 잦을 것으로 전망했다.

12월에는 대륙 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으나 전반적으로 기온(평년 2~5도)과 강수량(평년 31~32mm)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천 쓰레기 줍기

광주·전남재향군인회는 26일 광주천변 일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를 줍는 등 자연보호 활동을 벌였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9분

해지기 17시 43분

달뜨기 14시 05분

달지기 00시 11분

일교차 커요!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에 곳에 따라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	맑음	12/22℃
목포	맑음	12/21℃
여수	맑음	15/22℃
완도	맑음	12/22℃
구례	맑음	6/23℃
해남	맑음	7/23℃
장흥	맑음	7/23℃
고흥	맑음	9/24℃
순천	맑음	11/23℃
영광	맑음	10/22℃
진도	맑음	10/22℃
남원	맑음	6/22℃
목산도	맑음	15/20℃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보통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보통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보통	주의	낮음

〈오후〉바다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목포	07:56	02: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03:50	09:4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여수	16:58	23:23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수)	29(목)	30(금)	31(토)	11/1(일)	2(월)
날씨						
최저/최고	11/23	11/23	12/22	12/19	9/15	5/13



멧돼지 습격 … 사냥꾼의 역습

장성·보성 등 전남 4곳

내달부터 수렵장 개설

농가는 물론 도심까지 출몰, 피해와 공포심을 주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인간의 역습’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26일 보성군 등 전남 지역 4개 군을 포함한 전국 19개 시·군에 순환 수렵장 개설을 승인,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보성군과 장성군, 화순군, 강진군 등 4개 군 1천583km에 걸쳐 수렵장이 개설되며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수렵이 허용된다. 전국적으로는 19개 시·군 7천527km에 걸쳐 수렵장이 개설된

다.

이날 현재 보성군 등 4개 군에 수렵신청을 한 인원은 1천74명이며, 수렵기간 동안 총 1천956명까지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경지와 과수원, 분묘 등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특정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과도하다고 조사된 지역에서 매년 한시 운영된다.

보성군 등 전남지역 4개 군에서는 최대 9만2천514마리까지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14종으로 서식밀도에 따라 군별로 포획가능 야생동물과 개체수에 차이가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제주 상해여행 패키지

98,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여행

299,000~

하우스템보스즐기기

399,000~

대아고속도로로 떠나는 대마도여행

349,000~

아시아로 떠나는 북경 만리장성

1,990,000~

아시아로 떠나는 북경 만리장성

389,000~